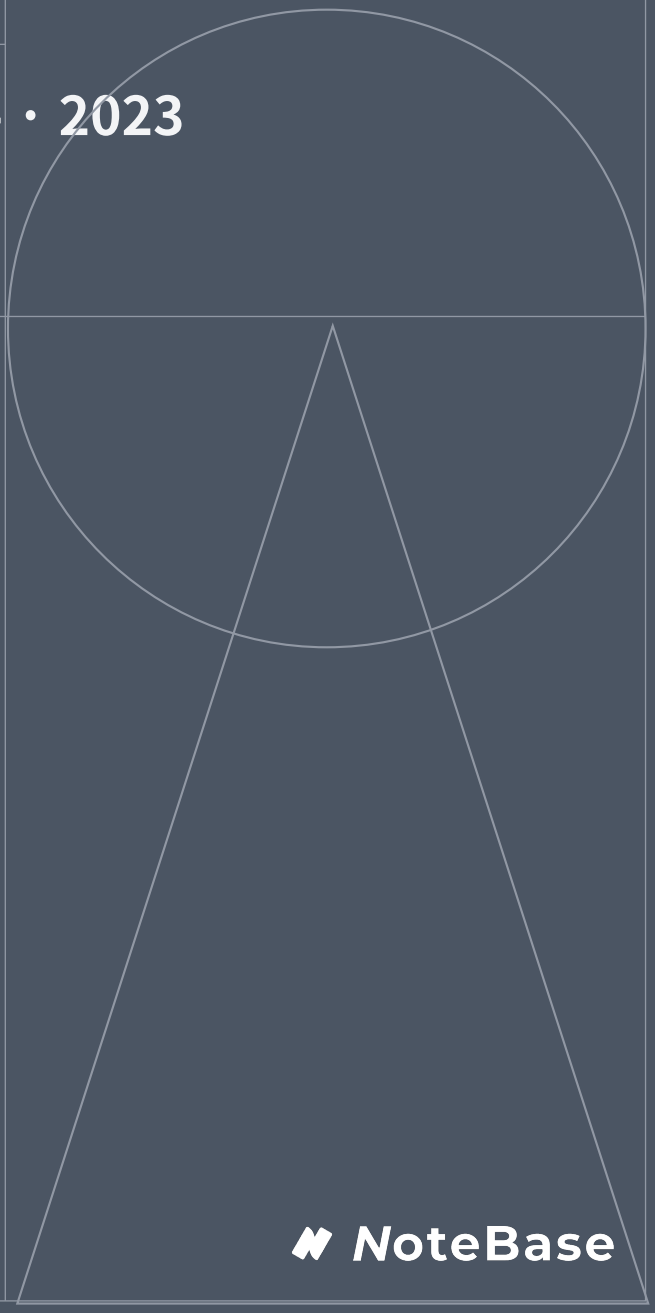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영학개론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영학개론 · 2023

전문직/노무사 · 경영학개론 · 2023

문 101. 다음 특성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의 형태는?

◯ 대규모 자본 조달이 용이하다.
◯ 출자자들은 유한책임을 진다.
◯ 전문경영인을 고용하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 자본의 증권화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용이하다.

① 개인기업
② 합명회사
③ 합자회사
④ 유한회사
⑤ 주식회사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대규모 자본 조달, 출자자의 유한책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자본의 증권화라는 특징을 함께 갖는 기업 형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식회사는 자본을 주식으로 나누어 다수의 주주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형태이다. 주주는 출자액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고, 주식의 이전을 통해 소유권을 비교적 쉽게 이전할 수 있으며, 전문경영인을 두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다.
개인기업은 한 개인이 소유·경영하고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이다.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구성한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지만 주식회사보다 폐쇄적인 소수 사원 중심의 형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개인기업은 소유자 개인이 직접 소유·경영하며 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출자자의 유한책임과 소유·경영의 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개인기업'이며, 올바르게는 '주식회사'이다.

② X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인적회사이므로 출자자들이 유한책임을 진다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합명회사'이며, 올바르게는 '주식회사'이다.

③ X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존재하므로 모든 출자자가 유한책임을 지는 형태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합자회사'이며, 올바르게는 '주식회사'이다.

④ X
유한회사는 사원이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은 맞지만, 지분을 주식으로 증권화하여 광범위하게 자본을 조달하고 소유권을 쉽게 이전하는 전형적인 형태는 아니다. 틀린 표현은 '유한회사'이며, 제시된 특성에 모두 해당하는 형태는 '주식회사'이다.

⑤ O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주주는 유한책임을 진다. 또한 전문경영인을 통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며 주식 이전으로 소유권을 비교적 쉽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네 특성을 모두 충족한다.

오답 포인트

④ 유한회사도 사원이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 때문에 주식회사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유한책임 하나가 아니라 '대규모 자본 조달·소유와 경영의 분리·자본의 증권화'까지 모두 충족하는지를 묻고 있으며, 이 결합은 주식회사의 대표적 특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업 형태를 판별할 때 책임 범위만 보지 않고 자본 조달 방식과 소유권 이전 방식까지 함께 확인한다. '주식 발행 또는 자본의 증권화, 대규모 자본, 유한책임,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함께 제시되면 주식회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주식회사의 핵심은 '주식으로 큰 자본을 모으고,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이다.

NoteBase

문 102. 다음 BCG 매트릭스의 4가지 영역 중, 시장성장률이 높은(고성장) 영역과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높은(고점유) 영역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현금젖소(cash cow)
ㄴ. 별(star)
ㄷ. 물음표(question mark)
ㄹ. 개(dog)

① 고성장: ㄱ, ㄴ, 고점유: ㄴ, ㄷ
② 고성장: ㄱ, ㄴ, 고점유: ㄴ, ㄹ
③ 고성장: ㄱ, ㄹ, 고점유: ㄱ, ㄴ
④ 고성장: ㄴ, ㄷ, 고점유: ㄱ, ㄴ
⑤ 고성장: ㄴ, ㄷ, 고점유: ㄱ, ㄷ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BCG 매트릭스의 네 영역을 시장성장률과 상대적 시장점유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별은 고성장·고점유 사업으로, 성장 기회와 강한 경쟁 지위를 함께 가진다.
물음표는 고성장·저점유 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시장 지위는 약하다.
현금젖소는 저성장·고점유 사업으로, 성장은 둔화되었지만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현금을 창출한다.
개는 저성장·저점유 사업으로, 성장성과 시장 지위가 모두 낮다.
따라서 고성장 영역은 별(ㄴ)과 물음표(ㄷ)이고, 고점유 영역은 현금젖소(ㄱ)와 별(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고성장 영역에 현금젖소(ㄱ)를, 고점유 영역에 물음표(ㄷ)를 넣은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고성장 영역이 ㄴ·ㄷ, 고점유 영역이 ㄱ·ㄴ이다.
② X — 고성장 영역의 현금젖소(ㄱ)와 고점유 영역의 개(ㄹ)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고성장 영역이 ㄴ·ㄷ, 고점유 영역이 ㄱ·ㄴ이다.
③ X — 고점유 영역의 ㄱ·ㄴ은 맞지만, 고성장 영역을 현금젖소(ㄱ)와 개(ㄹ)로 제시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른 고성장 영역은 별(ㄴ)과 물음표(ㄷ)이다.
④ O — 별(ㄴ)과 물음표(ㄷ)는 시장성장률이 높고, 현금젖소(ㄱ)와 별(ㄴ)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높으므로 두 분류가 모두 옳다.
⑤ X — 고성장 영역의 ㄴ·ㄷ은 맞지만, 고점유 영역에 물음표(ㄷ)를 넣은 부분이 틀렸다. 물음표는 저점유 영역이며, 올바른 고점유 영역은 현금젖소(ㄱ)와 별(ㄴ)이다.

오답 포인트

별은 두 기준이 모두 높아 고성장 목록과 고점유 목록에 모두 포함된다. 반면 물음표는 성장률만 높고, 현금젖소는 점유율만 높다는 점을 서로 바꾸어 제시한 선지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성장률 축에서는 별·물음표를 높음으로, 점유율 축에서는 별·현금젖소를 높음으로 묶는다. 그다음 각 선지의 두 목록이 이 조합과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별은 둘 다 높고, 개는 둘 다 낮다. 물음표는 성장률만 높고, 현금젖소는 점유율만 높다.

NoteBase

문 103. 경영환경을 일반환경과 과업환경으로 구분할 때,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업환경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정치적 환경
② 경제적 환경
③ 기술적 환경
④ 경쟁자
⑤ 사회문화적 환경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반환경과 기업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업환경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일반환경은 여러 기업에 폭넓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환경이며, 정치적·경제적·기술적·사회문화적 환경 등이 해당한다.
과업환경은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고 일상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데 직접 영향을 주는 외부 이해관계자나 집단의 환경이며, 경쟁자·고객·공급업자 등이 해당한다.
구분의 핵심은 영향의 범위보다 해당 환경이 특정 기업의 사업 활동과 직접 상호작용하는지 여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정치적 환경은 정부 정책이나 정치적 안정성처럼 기업 전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반환경이다. '과업환경'이 아니라 '일반환경'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경제적 환경은 경기, 물가, 금리 등 기업 전반의 의사결정에 폭넓게 영향을 주는 일반환경이다. '과업환경'이 아니라 '일반환경'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기술적 환경은 기술 발전과 혁신의 흐름처럼 여러 기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일반환경이다. '과업환경'이 아니라 '일반환경'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경쟁자는 같은 시장에서 고객과 자원을 두고 직접 경쟁하므로 특정 기업의 의사결정과 성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과업환경이다.
⑤ X — 사회문화적 환경은 가치관, 생활양식, 인구 특성 등 기업 전반에 폭넓게 영향을 주는 일반환경이다. '과업환경'이 아니라 '일반환경'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정치·경제·기술·사회문화 요소도 기업에 큰 영향을 주므로 과업환경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 전체의 거시적 조건으로서 기업에 간접적으로 작용한다. 이 문항에서는 기업과 시장에서 직접 맞닿는 '경쟁자'가 과업환경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거시적 조건이면 일반환경, 특정 기업과 직접 거래하거나 경쟁하는 주체이면 과업환경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정치·경제·기술·사회문화는 일반환경, 경쟁자·고객·공급업자는 과업환경이다.

NoteBase

문 104. 민츠버그(H. Mintzberg)의 5가지 조직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매트릭스 조직

② 기계적 관료제

③ 전문적 관료제

④ 애드호크라시

⑤ 사업부제 조직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민츠버그의 5가지 조직구조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민츠버그의 5가지 조직유형은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사업부제 조직, 애드호크라시이다.
단순구조: 최고관리자의 직접 감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단순하고 집권적인 구조이다.
기계적 관료제: 표준화된 작업 절차와 기술구조 부문의 영향력이 큰 구조이다.
전문적 관료제: 숙련과 지식의 표준화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일선 구성원이 핵심이 되는 구조이다.
사업부제 조직: 각 사업부의 성과를 표준화하고 중간관리층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구조이다.
애드호크라시: 상호 조정과 유연한 전문가 협업을 통해 복잡하고 새로운 과업을 수행하는 구조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별 조직과 사업별·프로젝트별 조직을 결합한 구조이지만, 민츠버그가 제시한 5가지 조직유형의 명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인 '매트릭스 조직'은 '단순구조'로 고쳐야 한다.
② O — 기계적 관료제는 공식화된 규칙과 작업 과정의 표준화를 중시하는 민츠버그의 조직유형이다.
③ O — 전문적 관료제는 전문교육으로 습득한 기술의 표준화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민츠버그의 조직유형이다.
④ O — 애드호크라시는 공식화가 낮고 전문가들의 상호 조정으로 혁신적 과업을 수행하는 민츠버그의 조직유형이다.
⑤ O — 사업부제 조직은 각 사업부의 산출 또는 성과를 표준화하여 통제하는 민츠버그의 조직유형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매트릭스 조직이 실제로 널리 쓰이는 대표적 조직구조이고 애드호크라시에서 매트릭스식 협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민츠버그의 5가지 유형 중 하나로 혼동하게 한 것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민츠버그의 조직유형 문제에서는 '단순·기계·전문·사업부·애드호크라시'의 다섯 명칭을 먼저 대조한다. 이 목록에 없는 매트릭스 조직은 별도의 조직설계 방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민츠버그의 5유형은 '단기전사애', 즉 단순구조·기계적 관료제·전문적 관료제·사업부제 조직·애드호크라시이다.

문 105. 퀸과 카메론(R. Quinn & K. Cameron)이 제시한 조직수명주기 단계의 순서로 옳은 것은?

ㄱ. 창업 단계
ㄴ. 공식화 단계
ㄷ. 집단공동체 단계
ㄹ. 정교화 단계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ㄴ → ㄹ → ㄷ
③ ㄱ → ㄷ → ㄴ → ㄹ
④ ㄱ → ㄷ → ㄹ → ㄴ
⑤ ㄱ → ㄹ → ㄴ → ㄷ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퀸과 카메론의 조직수명주기에서 조직이 탄생한 뒤 공동체를 형성하고, 제도를 공식화한 다음, 구조를 정교화하는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창업 단계(ㄱ) — 조직이 탄생하여 자원을 확보하고 창의적으로 생존 기반을 만드는 단계이다.
2. 집단공동체 단계(ㄷ) —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와 사명을 공유하고 응집력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3. 공식화 단계(ㄴ) — 규칙·절차와 통제 체계를 마련하여 조직 운영을 안정시키는 단계이다.
4. 정교화 단계(ㄹ) — 공식화된 구조를 바탕으로 협력과 분권화를 강화하며 조직을 더욱 유연하게 조정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올바른 순서는 ㄱ → ㄷ → ㄴ → ㄹ이다. 먼저 구성원의 결속과 공동 목표가 형성되어야 이를 규칙과 절차로 공식화할 수 있고, 공식화된 체계가 갖추어진 뒤에야 그 구조를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 → ㄴ → ㄷ → ㄹ은 공식화 단계(ㄴ)를 집단공동체 단계(ㄷ)보다 앞에 둔 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창업 단계(ㄱ) 다음에 집단공동체 단계(ㄷ)가 오고, 그 뒤에 공식화 단계(ㄴ)가 온다.
② X — ㄱ → ㄴ → ㄹ → ㄷ은 공동체 형성 전에 공식화와 정교화를 배치한 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ㄱ → ㄷ → ㄴ → ㄹ이다.
③ O — ㄱ → ㄷ → ㄴ → ㄹ은 창업, 집단공동체, 공식화, 정교화의 조직수명주기 순서와 일치한다.
④ X — ㄱ → ㄷ → ㄹ → ㄴ은 정교화 단계(ㄹ)를 공식화 단계(ㄴ)보다 앞에 둔 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공식화 단계(ㄴ) 후에 정교화 단계(ㄹ)가 온다.
⑤ X — ㄱ → ㄹ → ㄴ → ㄷ은 창업 직후 정교화가 온다고 본 점과 집단공동체 단계를 마지막에 둔 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ㄱ → ㄷ → ㄴ → ㄹ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집단공동체 단계(ㄷ)와 공식화 단계(ㄴ)의 선후관계이다. 조직은 창업 직후 곧바로 규칙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성원의 결속과 공동 목표를 형성한 뒤 운영 체계를 공식화한다. 정교화 단계(ㄹ)는 공식화된 구조를 조정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직의 탄생 → 사람들의 결속 → 규칙과 통제의 제도화 → 제도화된 구조의 고도화라는 발달 흐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창업 → 공동체 → 공식화 → 정교화, 즉 ‘만들고, 뭉치고, 제도화하고, 다듬는다’로 연결한다.

NoteBase

문 106. 켈리(H. Kelley)의 귀인이론에서 행동의 원인을 내적 또는 외적으로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이성(distinctiveness)
ㄴ. 형평성(equity)
ㄷ. 일관성(consistency)
ㄹ. 합의성(consensus)
ㅁ. 관계성(relationship)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켈리의 귀인이론에서 행동 원인의 귀속을 판단하는 세 가지 정보인 특이성, 일관성, 합의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켈리의 공변모형은 어떤 행동이 사람의 내적 원인 때문인지 상황·대상의 외적 원인 때문인지 판단할 때 세 정보를 함께 본다.
특이성(distinctiveness): 그 사람이 다른 대상에는 다르게 반응하고 특정 대상에만 그 행동을 보이는지를 나타낸다.
일관성(consistency): 그 사람이 같은 대상에 대해 시간이나 상황이 달라져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지를 나타낸다.
합의성(consensus): 다른 사람들도 같은 대상에 대해 비슷하게 행동하는지를 나타낸다.
형평성과 관계성은 켈리의 세 가지 귀인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 특이성과 ㄷ 일관성은 맞지만, ㄴ 형평성은 귀인 판단의 세 정보가 아니다. ㄴ을 ㄹ 합의성으로 고치면 'ㄱ, ㄷ, ㄹ'이 된다.
② O — ㄱ 특이성, ㄷ 일관성, ㄹ 합의성은 켈리가 내적·외적 귀인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세 가지 정보와 정확히 일치한다.
③ X — ㄱ 특이성과 ㄹ 합의성은 맞지만, ㅁ 관계성은 세 가지 귀인 정보가 아니며 ㄷ 일관성이 빠져 있다. 'ㄱ, ㄹ, ㅁ'은 'ㄱ, ㄷ, ㄹ'로 고쳐야 한다.
④ X — ㄷ 일관성만 해당하며 ㄴ 형평성과 ㅁ 관계성은 해당하지 않는다. 'ㄴ, ㄷ, ㅁ'은 'ㄱ, ㄷ, ㄹ'로 고쳐야 한다.
⑤ X — ㄹ 합의성만 해당하며 ㄴ 형평성과 ㅁ 관계성은 해당하지 않고, ㄱ 특이성과 ㄷ 일관성이 빠져 있다. 'ㄴ, ㄹ, ㅁ'은 'ㄱ, ㄷ, ㄹ'로 고쳐야 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형평성'과 '관계성'도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그럴듯한 용어이지만, 켈리의 공변모형을 구성하는 정식 판단 정보는 아니다. 세 영문 용어 distinctiveness, consistency, consensus를 정확히 연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켈리의 귀인 판단 정보는 '대상이 바뀌면 행동도 달라지는가'인 특이성, '같은 대상에 행동이 반복되는가'인 일관성, '다른 사람도 같은 행동을 하는가'인 합의성으로 판별한다.

암기 포인트

켈리의 세 정보는 특·일·합, 즉 특이성·일관성·합의성이다.

NoteBase

문 107. 집단사고(groupthink)의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신의 집단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환상

② 의사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환상

③ 반대의견을 스스로 자제하려는 자기검열

④ 외부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상동적 태도

⑤ 개방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는 압력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집단사고의 대표적 증상과 이를 예방하는 행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집단사고는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서 합의와 결속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대안의 현실적 검토와 비판적 판단이 억제되는 현상이다.
주요 증상에는 집단의 무오류성에 대한 환상, 만장일치의 환상, 자기검열, 외부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반대자에 대한 압력 등이 있다. 반대로 개방적인 토론 분위기와 자유로운 반대의견은 집단사고를 예방하는 조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자신의 집단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집단의 무오류성·불패성에 대한 환상으로서 집단사고의 증상이다.
② O — 구성원들이 모두 같은 의견이라고 여기고 만장일치가 형성되었다고 믿는 환상은 집단사고의 증상이다. 침묵을 동의로 간주하여 실제 이견을 확인하지 않는 데서 나타난다.
③ O — 반대의견이 있어도 집단의 합의를 깨지 않으려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 자기검열은 집단사고의 대표적 증상이다.
④ O — 외부집단을 무능하거나 악의적인 집단으로 단순화하여 보는 부정적 고정관념은 대안과 경고를 무시하게 만드는 집단사고의 증상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개방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는 압력'이다. 개방적인 분위기는 자유로운 비판과 이견 제시를 가능하게 하므로 집단사고의 증상이 아니라 예방책이다. 집단사고에서 나타나는 압력은 개방성을 요구하는 압력이 아니라 반대자를 침묵시키고 집단의 합의에 따르게 하는 동조 압력이다.

오답 포인트

⑤의 '압력'이라는 단어만 보고 집단사고의 증상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압력의 방향이 핵심이다. 집단사고는 반대의견을 억압하는 폐쇄적 동조 압력을 만들며, 개방적 토론을 촉진하는 분위기는 그 반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비판·이견·대안 탐색을 막고 합의를 강요하면 집단사고의 증상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자유로운 반론, 외부 의견 수용, 개방적 토론을 촉진하면 집단사고의 예방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집단사고는 '무오류 환상·만장일치 환상·자기검열·외집단 고정관념·동조 압력'이고, 개방적 반론은 예방책이다.

NoteBase

문 108. 성격의 Big 5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서적 안정성

② 성실성

③ 친화성

④ 모험선호성

⑤ 개방성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성격의 Big 5 모형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독립 차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Big 5 모형은 개인의 성격을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다섯 차원으로 설명한다.
정서적 안정성은 신경증 성향의 반대 극을 뜻하며, 개방성은 새로운 경험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성향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정서적 안정성은 불안과 충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Big 5 차원이다.
② O — 성실성은 책임감, 계획성, 자기통제와 목표지향성을 나타내는 Big 5 차원이다.
③ O — 친화성은 타인을 신뢰하고 협조하며 배려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Big 5 차원이다.
④ X — 모험선호성은 Big 5의 독립된 차원이 아니다. 틀린 표현인 '모험선호성'은 Big 5의 구성 차원인 '외향성'으로 고쳐야 한다.
⑤ O — 개방성은 새로운 경험, 아이디어, 상상력과 변화에 대한 수용성을 나타내는 Big 5 차원이다.

오답 포인트

모험을 선호하는 태도가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개방성과 비슷해 보여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모험선호성은 Big 5의 공식적인 독립 차원명이 아니며, 다섯 차원 중 선택지에 빠진 공식 차원은 외향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표현을 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적 안정성·개방성의 다섯 명칭과 하나씩 대조한다. 이 목록에 없는 성향은 관련 특성일 수 있어도 Big 5의 독립 차원으로 보지 않는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Big 5는 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적 안정성·개방성이며, 모험선호성은 별도 차원이 아니다.

NoteBase

문 109.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적합 리더십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LPC 척도는 가장 선호하지 않는 동료작업자를 평가하는 것이다.

② LPC 점수를 이용하여 리더십 유형을 파악한다.

③ 상황요인 3가지는 리더-부하관계, 과업구조, 부하의 성숙도이다.

④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 정도인 경우에는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⑤ 상황의 호의성이 좋은 경우에는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피들러의 상황적합 리더십이론에서 리더십 유형을 판별하는 LPC 척도와 상황의 호의성을 결정하는 세 요인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피들러는 리더가 가장 선호하지 않는 동료작업자(LPC)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리더십 유형을 구분한다.
LPC 점수가 낮으면 과업지향적 리더, 높으면 관계지향적 리더로 본다.
상황의 호의성은 리더-부하관계, 과업구조, 리더의 직위권력으로 결정된다. 상황이 매우 호의적이거나 매우 비호의적일 때에는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중간 정도로 호의적일 때에는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LPC 척도는 리더가 가장 선호하지 않는 동료작업자를 평가하도록 하여 리더의 기본적인 리더십 유형을 파악하는 척도이다.
② O — LPC 점수가 낮으면 과업지향적 유형, 높으면 관계지향적 유형으로 분류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부하의 성숙도'이다. 피들러 이론의 세 가지 상황요인은 리더-부하관계, 과업구조, 리더의 직위권력이다. 부하의 성숙도는 허시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이론에서 강조하는 상황변수이다.
④ O —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 수준이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⑤ O — 상황이 매우 호의적이면 과업을 명확하게 통제하는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③은 서로 다른 상황적 리더십이론의 상황변수를 섞은 선지이다. '부하의 성숙도'는 허시와 블랜차드의 변수이고, 피들러의 세 번째 상황요인은 '리더의 직위권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피들러 문항에서는 먼저 LPC 점수로 리더 유형을 구분하고, 상황요인은 '관계·구조·권력'인지 확인한다.
효과성은 '양극단은 과업지향, 중간은 관계지향'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피들러의 상황요인은 관계·구조·권력이고, 양극단은 과업지향, 중간은 관계지향이다.

문 110. 직무특성모형에서 중요심리상태의 하나인 의미충만(meaningfulness)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직무차원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술다양성
ㄴ. 과업정체성
ㄷ. 과업중요성
ㄹ. 자율성
ㅁ. 피드백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직무특성모형의 핵심직무차원 다섯 가지가 각각 어떤 중요심리상태를 만드는지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미충만은 자신의 일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느끼는 심리상태이다.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이 의미충만에 영향을 미친다.
자율성은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피드백은 업무 결과를 알게 한다.
따라서 대응 관계는 '기술다양성·과업정체성·과업중요성 → 의미충만', '자율성 → 결과에 대한 책임감', '피드백 → 결과에 대한 지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 기술다양성, ㄴ 과업정체성, ㄷ 과업중요성은 모두 의미충만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직무차원이다.
② X — ㅁ 피드백을 의미충만의 영향 요인에 포함하고 ㄷ 과업중요성을 제외한 부분이 틀리다. 피드백은 결과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③ X — ㄹ 자율성과 ㅁ 피드백을 의미충만의 영향 요인에 포함한 부분이 틀리다. 자율성은 결과에 대한 책임감, 피드백은 결과에 대한 지식과 연결되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④ X — ㄹ 자율성을 의미충만의 영향 요인에 포함하고 ㄱ 기술다양성을 제외한 부분이 틀리다. 자율성은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연결되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⑤ X — ㄹ 자율성과 ㅁ 피드백을 의미충만의 영향 요인에 포함하고 ㄱ 기술다양성과 ㄴ 과업정체성을 제외한 부분이 틀리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오답 포인트

다섯 가지 핵심직무차원이 모두 중요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치지만, 같은 심리상태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율성과 피드백까지 의미충만의 요인으로 묶으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의미충만을 물으면 일 자체의 내용과 가치를 보여 주는 기술다양성·과업정체성·과업중요성을 고른다. 자율성은 책임감, 피드백은 결과에 대한 지식으로 따로 대응시킨다.

암기 포인트

의미는 '기·정·중', 책임은 자율성, 결과 지식은 피드백이다.

NoteBase

문 111. 기업 경영에서 마케팅 개념(marketing concept)이 발전해 온 순서로 옳은 것은?

① 생산 개념 → 제품 개념 → 판매 개념 → 마케팅 개념
② 생산 개념 → 판매 개념 → 제품 개념 → 마케팅 개념
③ 제품 개념 → 생산 개념 → 판매 개념 → 마케팅 개념
④ 제품 개념 → 판매 개념 → 생산 개념 → 마케팅 개념
⑤ 판매 개념 → 제품 개념 → 생산 개념 → 마케팅 개념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업의 시장 대응 관점이 생산 효율 중심에서 제품 품질, 판매 촉진, 고객 욕구 중심으로 발전한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생산 개념 —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량생산과 유통 효율을 중시한다.
2. 제품 개념 — 소비자가 우수한 품질과 성능을 선호한다고 보고 제품 개선을 중시한다.
3. 판매 개념 — 생산된 제품을 적극적인 판매와 촉진 활동으로 구매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둔다.
4. 마케팅 개념 — 표적시장의 욕구를 파악하고 경쟁자보다 효과적으로 충족하여 기업 목표를 달성한다.

왜 이 순서인가: 시장이 성숙하면서 기업의 초점이 생산량 확보에서 제품 우수성, 판매 확대를 거쳐 고객 욕구 충족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생산 개념 → 제품 개념 → 판매 개념 → 마케팅 개념의 순서가 정확하다.
② X — 제품 개념과 판매 개념의 순서를 바꾼 것이 틀리다. 제품 자체의 품질과 성능을 중시하는 제품 개념이 먼저이고, 이후 적극적인 판매와 촉진을 중시하는 판매 개념이 나타난다. 올바르게는 생산 개념 → 제품 개념 → 판매 개념 → 마케팅 개념이다.
③ X — 첫 두 단계인 제품 개념 → 생산 개념의 순서가 틀리다. 생산 효율과 대량생산을 중시하는 생산 개념이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중시하는 제품 개념보다 먼저이다. 올바르게는 생산 개념 → 제품 개념 → 판매 개념 → 마케팅 개념이다.
④ X — 제품 개념 → 판매 개념 → 생산 개념으로 배열하여 생산 개념을 뒤에 둔 것이 틀리다. 생산 개념은 발전 과정의 출발점이다. 올바르게는 생산 개념 → 제품 개념 → 판매 개념 → 마케팅 개념이다.
⑤ X — 판매 개념을 첫 단계로 두고 생산 개념을 세 번째에 둔 것이 틀리다. 판매 개념은 생산 개념과 제품 개념 이후에 등장한다. 올바르게는 생산 개념 → 제품 개념 → 판매 개념 → 마케팅 개념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제품 개념과 판매 개념을 혼동하기 쉽다. 제품 개념은 좋은 제품을 만들면 소비자가 선택한다고 보는 관점이고, 판매 개념은 이미 만든 제품을 적극적인 판매와 촉진으로 구매하게 하는 관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강조점의 이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생산 효율 → 제품 품질 → 판매·촉진 → 고객 욕구의 순서이면 올바른 발전 과정이다.

암기 포인트

생산하고, 제품을 개선하고, 판매한 뒤, 고객을 이해한다: 생산 → 제품 → 판매 → 마케팅이다.

NoteBase

문 112. 광고(advertising)와 홍보(public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고는 홍보와 달리 매체 비용을 지불한다.

② 홍보는 일반적으로 광고보다 신뢰성이 높다.

③ 광고는 일반적으로 홍보보다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

④ 홍보는 언론의 기사나 뉴스 형태로 많이 이루어진다.

⑤ 홍보의 세부 유형으로 PR(Public Relations)이 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광고(advertising)와 퍼블리시티(publicity)를 매체비용, 신뢰성, 통제 가능성, 전달 형태, PR과의 관계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광고는 광고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매체를 통해 통제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료 커뮤니케이션이다.
퍼블리시티는 기업이나 제품에 관한 정보가 언론의 기사·뉴스 등 비인적 형태로 보도되도록 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으로 매체 지면이나 방송 시간에 대한 직접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PR(Public Relations)은 조직과 여러 공중 사이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더 넓은 활동이며, 퍼블리시티는 PR에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광고는 광고주가 매체 지면이나 방송 시간 등의 비용을 지불하지만, 퍼블리시티는 일반적으로 기사·뉴스 게재 자체에 대한 매체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는다.
② O — 퍼블리시티는 기업이 직접 구매한 메시지가 아니라 언론 등 제3자가 다루는 정보로 인식되므로 일반적으로 광고보다 신뢰성이 높다.
③ O — 광고주는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메시지의 내용, 표현, 노출 시점과 빈도 등을 퍼블리시티보다 더 많이 통제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의 보도 여부와 보도 내용은 언론의 판단에 크게 좌우된다.
④ O — 퍼블리시티는 기업이나 제품 관련 정보가 언론의 기사나 뉴스 형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⑤ X — 틀린 표현은 ‘퍼블리시티의 세부 유형으로 PR이 있다’이다. 실제로는 PR이 더 넓은 개념이고, 퍼블리시티가 PR에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이다.

오답 포인트

일상어에서는 PR과 홍보를 비슷하게 쓰지만, 이 문항은 홍보를 publicity로 명시하였다. ⑤는 PR과 퍼블리시티의 포함 관계를 거꾸로 제시한 선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용을 내고 메시지를 통제하면 광고, 언론의 기사·뉴스로 노출되며 통제가 제한되면 퍼블리시티로 판단한다. PR과의 관계를 물으면 PR이 상위 개념이고 퍼블리시티가 그 수단임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광고는 유료·고통제, 퍼블리시티는 기사·고신뢰·저통제, PR은 퍼블리시티보다 넓은 개념이다.

NoteBase

문 113. 로저스(E. Rogers)의 혁신에 대한 수용자 유형이 아닌 것은?

① 혁신자(innovators)
② 조기수용자(early adopters)
③ 후기수용자(late adopters)
④ 조기다수자(early majority)
⑤ 후기다수자(late majority)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로저스의 혁신확산이론에서 혁신 수용 시점에 따라 구분한 다섯 수용자 유형의 정식 명칭을 묻는다.

핵심 정리

로저스는 혁신 수용자를 수용이 빠른 순서대로 혁신자(innovators), 조기수용자(early adopters), 조기다수자(early majority), 후기다수자(late majority), 지각수용자(laggards)로 구분한다.
혁신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시도하고, 조기수용자는 다른 구성원에게 의견 선도자의 역할을 한다.
조기다수자는 평균보다 이르게 신중하게 수용하며, 후기다수자는 다수의 수용과 사회적 압력 등이 형성된 뒤 회의적인 태도로 수용한다. 지각수용자는 전통을 중시하며 가장 늦게 수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혁신자(innovators)는 새로운 혁신을 가장 먼저 시도하는 정식 수용자 유형이다.
② O — 조기수용자(early adopters)는 혁신자 다음으로 수용하며 의견 선도자 역할을 하는 정식 유형이다.
③ X — 후기수용자(late adopters)는 로저스가 제시한 다섯 유형의 정식 명칭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후기수용자(late adopters)'이며, 올바르게는 가장 늦게 혁신을 받아들이는 '지각수용자(laggards)'이다.
④ O — 조기다수자(early majority)는 평균적인 구성원보다 이른 시기에 신중하게 혁신을 받아들이는 정식 유형이다.
⑤ O — 후기다수자(late majority)는 다수가 혁신을 받아들인 뒤 비교적 늦게 수용하는 정식 유형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③의 '후기수용자'는 '후기다수자'와 '지각수용자'를 섞어 만든 듯한 그럴듯한 표현이다. 정식 분류에는 후기다수자는 있지만 후기수용자는 없으며, 마지막 유형은 지각수용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용 순서를 '혁신자 → 조기수용자 → 조기다수자 → 후기다수자 → 지각수용자'로 배열한 뒤, 선지의 명칭이 이 다섯 범주에 포함되는지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혁신-조기수용-조기다수-후기다수-지각의 순서이며, '후기수용자'는 정식 범주가 아니다.

NoteBase

문 114. (주)한국의 매출 및 매출채권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간은? (단,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매출액	₩3,000,000
기초매출채권	150,000
기말매출채권	100,000

① 10일

② 15일

③ 18일

④ 20일

⑤ 24일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평균 매출채권을 구한 뒤 매출채권회전율을 계산하고, 360일을 회전율로 나누어 평균회수기간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매출액 3,000,000원, 기초 매출채권 150,000원, 기말 매출채권 10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간이다.
주의할 조건: 매출채권은 기초와 기말의 평균액을 사용하며, 1년은 360일로 계산한다.

사용할 공식

평균 매출채권=기초 매출채권+기말 매출채권2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평균 매출채권
평균회수기간=360일매출채권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은 1년 동안 평균 매출채권이 몇 번 현금으로 회수되었는지를 나타내므로, 1년의 일수를 회전율로 나누면 한 번 회수하는 데 걸리는 평균 일수가 된다.

계산 과정

1. 평균 매출채권은 (150,000 + 100,000) ÷ 2 = 125,000원이 된다.
2. 매출채권회전율은 3,000,000 ÷ 125,000 = 24회이다.
3. 평균회수기간은 360 ÷ 24 = 15일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10일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10일'은 '15일'로 고쳐야 한다.
② O — 평균회수기간은 360 ÷ 24 = 15일이므로 옳다.
③ X — 18일은 기초 매출채권 150,000원만 사용하여 360 ÷ (3,000,000 ÷ 150,000)으로 계산할 때 나오는 값이다. 기초·기말 평균액 125,000원을 사용해야 하므로 '18일'은 '15일'로 고쳐야 한다.
④ X — 20일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20일'은 '15일'로 고쳐야 한다.
⑤ X — 24는 회수기간이 아니라 매출채권회전율의 횟수이다. '24일'은 '15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기초 매출채권이나 기말 매출채권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반드시 두 금액의 평균인 125,000원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24회는 회전율이고, 문제에서 묻는 평균회수기간은 이를 일수로 바꾼 15일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초·기말 매출채권의 평균을 먼저 구한 다음 '매출액 ÷ 평균 매출채권'으로 회전율을 계산하고, 마지막에 '연간 일수 ÷ 회전율'로 평균회수기간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평균 매출채권 → 회전율 → 360일 ÷ 회전율의 순서이며, 회전율의 단위는 회, 평균회수기간의 단위는 일이다.

NoteBase

문 115. 적대적 M&A의 방어전략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피인수기업의 기존 주주에게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적대적 M&A를 시도하려는 세력에게 손실을 가하고자 한다.

① 백기사(white knight)
② 그린메일(green mail)
③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④ 독약조항(poison pill)
⑤ 왕관보석(crown jewel)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적대적 M&A 방어전략을 '누구에게 어떤 권리나 이익을 주는가'라는 기준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기존 주주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살 권리를 주어 인수 시도자의 지분을 희석하는 전략은 독약조항이다.

핵심 개념

독약조항(poison pill): 적대적 인수 시도 등 일정 조건이 발생하면 기존 주주가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 등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인수자의 지분가치와 지분율을 희석하는 방어전략이다.
백기사는 우호적인 제3의 인수자, 그린메일은 공격자 보유 주식의 고가 매입, 황금낙하산은 경영진에 대한 거액의 퇴직보상, 왕관보석은 핵심 자산의 매각·처분을 각각 이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백기사(white knight)는 피인수기업이 적대적 인수자를 막기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제3의 인수자를 찾는 전략이다. '기존 주주에게 할인 매입권을 부여하는 전략'이라는 설명은 백기사가 아니라 독약조항이다.

② X
그린메일(greenmail)은 적대적 인수 시도자가 보유한 대상기업의 주식을 대상기업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되사 주어 인수 시도를 철회하게 하는 전략이다. '기존 주주에게 할인 매입권을 부여하는 전략'은 그린메일이 아니라 독약조항이다.

③ X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은 적대적 인수로 경영진이 퇴직하게 될 때 거액의 퇴직금이나 보상을 지급하도록 계약하여 인수 비용을 높이는 전략이다. '기존 주주에게 할인 매입권을 부여하는 전략'은 황금낙하산이 아니라 독약조항이다.

④ O
독약조항(poison pill)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기존 주주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다. 그 결과 인수 시도자의 지분율과 지분가치가 희석되어 적대적 인수의 비용이 커지므로 지문의 설명과 일치한다.

⑤ X
왕관보석(crown jewel)은 인수자가 노리는 핵심 자산이나 수익성 높은 사업을 매각·처분하여 대상기업의 매력을 낮추는 전략이다. '기존 주주에게 할인 매입권을 부여하는 전략'은 왕관보석이 아니라 독약조항이다.

오답 포인트

모든 선지가 적대적 M&A 방어전략이라는 점은 같지만 작동 수단이 다르다. 지문의 '기존 주주', '할인된 가격', '주식 매입 권리'가 독약조항을 가리키는 결정적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방어전략의 이름보다 작동 수단을 먼저 확인한다. 기존 주주의 할인 매입권은 독약조항, 우호적 제3자는 백기사, 공격자 주식의 고가 환매는 그린메일, 경영진의 거액 보상은 황금낙하산, 핵심 자산 처분은 왕관보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할인 신주로 공격자 지분을 희석하면 독약조항이다.

NoteBase

문 116. (주)한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액면금액 ₩1,000,000, 액면이자율 8%, 만기 5년, 이자는 매년 말 지급)를 발행하였다. 시장이자율이 10%일 경우, 사채의 발행금액은? (단, 사채발행비는 없으며, 현가계수는 주어진 자료를 이용한다.)

기간(년)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		정상연금 ₩1의 현가계수	
	8%	10%	8%	10%
5	0.68	0.62	3.99	3.79

① ₩896,800

② ₩923,200

③ ₩939,800

④ ₩983,200

⑤ ₩999,2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사채의 발행금액을 만기 원금의 현재가치와 매년 지급하는 이자의 현재가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액면금액은 ₩1,000,000, 액면이자율은 8%, 만기는 5년, 시장이자율은 10%이다.
매년 말 지급하는 이자는 ₩1,000,000 × 8% = ₩80,000이다.
현재가치 계산에는 시장이자율 10%의 계수인 단일금액 현가계수 0.62와 정상연금 현가계수 3.79를 사용한다.

사용할 공식

사채 발행금액=만기 원금의 현재가치+이자의 현재가치
=액면금액×단일금액 현가계수+매년 이자×정상연금 현가계수
원금은 만기에 한 번 지급하므로 단일금액 현가계수를 적용하고, 동일한 이자는 매년 말 반복 지급하므로 정상연금 현가계수를 적용한다. 두 현금흐름 모두 시장이자율 10%로 할인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만기 원금의 현재가치는 ₩1,000,000 × 0.62 = ₩620,000이다.
2. 이자의 현재가치는 ₩80,000 × 3.79 = ₩303,200이다.
3. 사채 발행금액은 ₩620,000 + ₩303,200 = ₩923,200이다.

액면이자율 8%가 시장이자율 10%보다 낮으므로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은 할인발행이라는 점과도 일치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896,800은 원금 현재가치 ₩620,000과 이자 현재가치 ₩303,200의 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발행금액이며, 올바른 금액은 ₩923,200이다.

② O — 원금 현재가치 ₩620,000과 이자 현재가치 ₩303,200을 더하면 ₩923,200이 된다.

③ X — ₩939,800은 두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 10%로 할인한 합계가 아니다. 틀린 발행금액이며, 올바른 금액은 ₩923,200이다.

④ X — ₩983,200은 계산된 현재가치 합계보다 ₩60,000 크다. 틀린 발행금액이며, 올바른 금액은 ₩923,200이다.

⑤ X — ₩999,200은 액면금액에 가깝지만,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높아 생기는 할인효과를 정확히 반영한 금액이 아니다. 틀린 발행금액이며, 올바른 금액은 ₩923,200이다.

오답 포인트

액면금액에 하나의 현가계수만 곱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같은 종류의 현금흐름으로 처리하면 틀린다. 특히 액면이자율 8%는 매년 이자 ₩80,000을 구할 때 쓰고, 시장이자율 10%는 현재가치계수를 선택할 때 쓴다는 구분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액면금액과 액면이자율로 매년 이자를 구한다. 그다음 만기 원금에는 단일금액 현가계수, 매년 이자에는 정상연금 현가계수를 적용해 두 현재가치를 더한다. 마지막으로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으면 할인발행인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사채 가격은 원금의 현재가치와 이자의 현재가치의 합이다. 액면이자율은 이자 계산에, 시장이자율은 할인계수 선택에 사용한다.

NoteBase

문 117. 제품설계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시공학은 부품이나 중간 조립품의 호환성과 공용화를 높여서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기법이다.

② 모듈러설계는 불필요한 원가요인을 발굴하여 제거함으로써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기법이다.

③ 가치공학은 신제품 출시과정을 병렬적으로 진행하여 신제품 출시기간을 단축하는 기법이다.

④ 품질기능전개는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제품의 기술적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⑤ 가치분석은 제품이나 공정을 처음부터 환경변화의 영향을 덜 받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제품설계 기법의 명칭과 핵심 목적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시공학은 제품설계와 공정설계 등 신제품 개발 활동을 여러 부서가 병렬적으로 수행하여 개발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모듈러설계는 표준화된 부품이나 중간 조립품을 모듈로 구성하여 호환성과 공용화를 높이는 방식이다.
가치공학은 제품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높이면서 불필요한 원가를 제거하여 가치를 높이는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설계단계의 개선을 가치공학, 기존 제품의 개선을 가치분석이라고 구분한다.
품질기능전개는 고객의 요구를 제품과 부품의 기술적 특성 및 생산 요구사항으로 체계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강건설계는 환경이나 사용조건의 변화에도 제품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동시공학'이다. 부품이나 중간 조립품의 호환성과 공용화를 높여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것은 모듈러설계에 해당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모듈러설계'이다. 불필요한 원가요인을 찾아 제거하여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가치공학 또는 가치분석의 핵심 내용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가치공학'이다. 신제품 출시과정을 병렬적으로 진행하여 출시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동시공학이다.
④ O — 품질기능전개는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제품의 기술적 설계특성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므로 옳다.
⑤ X — 틀린 표현은 '가치분석'이다. 제품이나 공정이 환경변화의 영향을 덜 받도록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은 강건설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각 선지는 기법의 설명 자체보다 앞에 붙은 명칭을 바꾸어 놓았다. 특히 ③의 ‘병렬적 진행’은 동시공학, ⑤의 ‘환경변화의 영향을 덜 받도록 설계’는 강건설계의 대표 단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병렬 개발·출시기간 단축은 동시공학, 부품 공용화·호환성은 모듈러설계, 기능 대비 원가 절감은 가치공학·가치분석, 고객 요구의 기술특성 전환은 품질기능전개, 환경변화에도 성능 유지는 강건설계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동시공학은 병렬, 모듈러는 공용화, 가치공학은 기능 대비 원가, 품질기능전개는 고객의 소리, 강건설계는 환경변화에 둔감이다.

NoteBase

문 118. 최종소비자의 수요변동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연이나 왜곡현상이 발생하여 재고부족 또는 과잉 문제가 발생하고 공급사슬 상류로 갈수록 수요변동이 증폭되는 현상은?

① 채찍 효과
② 포지셔닝 효과
③ 리스크 풀링 효과
④ 크로스 도킹 효과
⑤ 레버리지 효과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최종소비자의 작은 수요변동이 공급사슬의 상류로 전달될수록 더 크게 증폭되는 현상의 명칭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채찍 효과는 주문 정보의 지연·왜곡 등으로 인해 소비자 수요의 작은 변동이 소매업자, 도매업자, 제조업자 등 공급사슬의 상류로 갈수록 더 큰 주문 변동으로 증폭되는 현상이다.
핵심 키워드는 '수요정보의 왜곡', '상류로 갈수록 변동 증폭', '재고 부족 또는 과잉'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채찍 효과는 최종소비자의 수요변동이 공급사슬 상류로 전달되면서 증폭되어 재고 부족이나 과잉을 일으키는 현상이므로 지문의 설명과 일치한다.
② X — '포지셔닝 효과'는 지문의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채찍 효과이다. 포지셔닝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인식 속에 제품이나 브랜드가 차별적인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는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다.
③ X — '리스크 풀링 효과'는 지문의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채찍 효과이다. 리스크 풀링은 여러 지역이나 수요를 통합하여 개별 수요의 변동 위험을 상쇄하고 전체 재고 부담을 줄이는 효과이다.
④ X — '크로스 도킹 효과'는 지문의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채찍 효과이다. 크로스 도킹은 입고된 상품을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 분류하여 곧바로 출고하는 물류 운영 방식이다.
⑤ X — '레버리지 효과'는 지문의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채찍 효과이다. 레버리지 효과는 고정비나 타인자본의 사용으로 매출 또는 영업성과의 변화보다 이익이나 자기자본수익률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효과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리스크 풀링과 ④의 크로스 도킹도 공급사슬·물류 분야에서 쓰이므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상류로 갈수록 수요변동이 증폭된다'는 표현은 채찍 효과만을 직접 지칭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최종수요보다 주문량의 변동이 더 커지고 그 변동이 소매업자에서 도매업자·제조업자 방향으로 확대된다는 단서가 있으면 채찍 효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채찍은 손잡이의 작은 움직임이 끝으로 갈수록 커진다. 공급사슬도 소비자의 작은 수요변동이 상류로 갈수록 크게 증폭된다.

NoteBase

문 119. 다음 중 도요타 생산시스템에서 정의한 7가지 낭비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잉생산에 의한 낭비
ㄴ. 대기시간으로 인한 낭비
ㄷ. 재고로 인한 낭비
ㄹ. 작업자 재교육으로 인한 낭비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도요타 생산시스템이 제거 대상으로 보는 7가지 낭비의 구성 항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7가지 낭비는 과잉생산, 대기, 운반, 과잉가공, 재고, 불필요한 동작, 불량에 따른 낭비이다.
따라서 ㄱ의 과잉생산, ㄴ의 대기시간, ㄷ의 재고는 해당하지만, ㄹ의 작업자 재교육은 7가지 낭비의 표준 항목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ㄴ은 모두 낭비유형이지만, 낭비유형에 해당하는 ㄷ을 빠뜨렸으므로 전체를 고른 조합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② X
ㄷ은 낭비유형이지만 ㄹ의 작업자 재교육은 7가지 낭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하는 ㄱ과 ㄴ도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③ O
ㄱ의 과잉생산, ㄴ의 대기시간, ㄷ의 재고는 모두 도요타 생산시스템의 7가지 낭비에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는 ㄹ은 제외한 조합이다.

④ X
ㄴ과 ㄷ은 낭비유형이지만 ㄹ의 작업자 재교육은 포함되지 않고, 해당하는 ㄱ의 과잉생산도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⑤ X
ㄱ, ㄴ, ㄷ은 낭비유형이지만 ㄹ의 작업자 재교육까지 포함한 부분이 틀렸다. ㄹ을 제외한 ㄱ, ㄴ, ㄷ이 올바른 조합이다.

오답 포인트

현장에서 재교육에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7가지 낭비의 공식 분류에 넣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일반적인 비용 발생 여부가 아니라 정해진 7가지 분류명을 묻는다. 또한 ①처럼 맞는 항목만 들어 있어도 ㄷ을 누락하면 '모두 고른' 답이 될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항목을 7가지 낭비의 표준 목록과 하나씩 대조한 뒤, 해당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비해당 항목을 전부 제외한 조합을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과잉생산·대기·운반·과잉가공·재고·동작·불량은 7가지 낭비이고, 작업자 재교육은 그 목록에 없다.

NoteBase

문 120. 다음의 수요예측기법 중 시계열(time series) 예측기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동평균법
ㄴ. 지수평활법
ㄷ. 델파이 기법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과거 수요의 시간적 흐름을 이용하는 시계열 예측기법과 전문가의 판단을 이용하는 정성적 예측기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계열 예측기법은 과거에 시간 순서대로 관측된 수요 자료의 수준·추세·계절성 등을 이용해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동평균법은 최근 일정 기간의 실제 수요를 평균하여 다음 기간의 수요를 예측하므로 시계열 예측기법이다.
지수평활법은 최근 자료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여 예측치를 갱신하므로 시계열 예측기법이다.
델파이 기법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익명으로 반복 수렴하여 예측하는 정성적 예측기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이동평균법은 시계열 예측기법이지만, ㄴ의 지수평활법도 시계열 예측기법이므로 ㄱ만 고른 것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ㄱ, ㄴ이다.

② X
ㄴ의 지수평활법은 시계열 예측기법이지만, ㄱ의 이동평균법도 시계열 예측기법이므로 ㄴ만 고른 것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ㄱ, ㄴ이다.

③ O
ㄱ의 이동평균법과 ㄴ의 지수평활법은 모두 과거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므로 시계열 예측기법에 해당한다.

④ X
ㄷ의 델파이 기법을 포함하고 ㄱ의 이동평균법을 제외한 것이 틀렸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의견을 이용하는 정성적 예측기법이며, 올바르게는 ㄱ, ㄴ이다.

⑤ X
ㄷ의 델파이 기법까지 시계열 예측기법에 포함한 것이 틀렸다. 델파이 기법은 정성적 예측기법이므로 이를 제외한 ㄱ, ㄴ이 올바르다.

오답 포인트

델파이 기법도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라는 점만 보고 시계열 기법으로 묶기 쉽다. 그러나 분류 기준은 예측의 목적이 아니라 사용 정보이며, 과거 수요 자료를 쓰는 이동평균법·지수평활법과 전문가 판단을 쓰는 델파이 기법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과거의 수치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면 시계열 예측기법, 전문가의 경험과 의견을 수렴하면 정성적 예측기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동평균·지수평활은 과거 자료를 보는 시계열, 델파이는 전문가에게 묻는 정성적 기법이다.

NoteBase

문 121. 거래의 결합관계가 비용의 발생과 부채의 증가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래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외상으로 구입한 업무용 컴퓨터를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② 종업원 급여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③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결산기말에 인식하였다.

④ 거래처에서 영업용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⑤ 은행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각 거래가 자산·부채·수익·비용 가운데 어떤 요소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비용의 발생과 부채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려면 비용은 이미 인식하지만 그 대가를 아직 지급하지 않아 지급 의무가 남아 있어야 한다. 미지급 급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핵심 개념

발생주의에서는 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을 인식한다. 발생한 비용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비용이 증가하는 동시에 미지급금 등의 부채가 증가한다.

적용 기준

거래마다 무엇을 얻거나 잃었는지와 지급 의무가 새로 생기거나 사라졌는지를 구분한다. 비용이 발생하고 미지급 의무가 새로 생긴 거래만 '비용 증가·부채 증가'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생긴 채무를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이므로 부채가 감소하고 현금이라는 자산도 감소한다. '비용 발생·부채 증가'가 아니라 '자산 감소·부채 감소'이다.
② O — 종업원의 근로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급여비용이 증가하고 미지급급여라는 부채가 증가한다.
③ X — 대여금 이자를 결산기에 인식하면 이자수익이 증가하고 미수이자라는 자산이 증가한다. '비용 발생·부채 증가'가 아니라 '수익 증가·자산 증가'이다.
④ X — 영업용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다. '비용 발생·부채 증가'가 아니라 '자산 증가·부채 증가'이다.
⑤ X — 차입금을 상환하면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다. '비용 발생·부채 증가'가 아니라 '자산 감소·부채 감소'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도 부채가 증가하므로 혼동하기 쉽지만, 상품의 외상 구입은 구입 시점에 비용이 아니라 자산을 인식한다. 또한 ①과 ⑤의 현금 지급은 새로운 비용의 발생이 아니라 기존 부채의 상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비용·수익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현금의 증감과 채권·채무의 증감을 확인한다.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비용 증가와 부채 증가의 결합을 뜻한다.

암기 포인트

비용은 발생했고 돈은 아직 안 냈다면 비용 증가·부채 증가이다.

NoteBase

문 122.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재고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이익은?

총매출액	₩10,000	총매입액	₩7,000
매출환입액	50	매입에누리액	80
기초재고액	200	매입운임액	20
기말재고액	250		

① ₩2,980

② ₩3,030

③ ₩3,060

④ ₩3,080

⑤ ₩3,11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매출환입을 차감하여 순매출액을 구하고, 매입에누리는 차감하고 매입운임은 가산하여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총매출액 10,000원, 매출환입액 50원, 기초재고액 200원, 기말재고액 250원, 총매입액 7,000원, 매입에누리액 80원, 매입운임액 20원이다.
구해야 할 값: 매출총이익이다.
주의할 조건: 매출환입은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매입에누리는 매입액에서 차감하며, 매입운임은 재고 취득에 필요한 원가이므로 매입액에 가산한다.

사용할 공식

순매출액=총매출액-매출환입액
순매입액=총매입액-매입에누리액+매입운임액
매출원가=기초재고액+순매입액-기말재고액
매출총이익=순매출액-매출원가
상품의 판매로 실현된 이익을 구해야 하므로 순매출액에서 판매된 상품의 원가인 매출원가를 차감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순매출액은 10,000원 - 50원 = 9,950원이다.
2. 순매입액은 7,000원 - 80원 + 20원 = 6,940원이다.
3. 매출원가는 200원 + 6,940원 - 250원 = 6,890원이다.
4. 매출총이익은 9,950원 - 6,890원 = 3,06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2,980원은 매입에누리액 80원을 매입액에서 차감하지 않을 때 나오는 값이다. 매입에누리를 반영한 올바른 매출총이익은 3,060원이다.
② X — 3,030원은 순매출액 9,950원에서 매출원가 6,890원을 차감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3,030원이 아니라 3,060원이다.
③ O — 순매출액 9,950원에서 매출원가 6,890원을 차감하면 3,060원이므로 옳다.
④ X — 3,080원은 매입운임액 20원을 매입원가에 가산하지 않을 때 나오는 값이다. 매입운임을 반영한 올바른 매출총이익은 3,060원이다.
⑤ X — 3,110원은 매출환입액 50원을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을 때 나오는 값이다. 매출환입을 반영한 올바른 매출총이익은 3,060원이다.

오답 포인트

매입에누리와 매입운임의 방향을 반대로 처리하기 쉽다. 매입에누리는 매입원가를 줄이므로 차감하고, 매입운임은 상품을 들여오는 데 든 원가이므로 가산한다. 또한 기말재고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품이므로 매출원가 계산에서 차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순매출액과 순매입액을 각각 구한 뒤, 기초재고액과 기말재고액을 반영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마지막에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다.

암기 포인트

매출환입은 매출에서 빼고, 매입에누리는 매입에서 빼며, 매입운임은 매입에 더한다.

NoteBase

문 123. 현행 K-IFRS에 의한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재무상태변동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⑤ 주석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현행 K-IFRS에서 완전한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보고서와 주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완전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으로 구성된다. 특정한 소급 적용·소급 재작성·재분류가 있는 경우에는 비교기간 시작일의 재무상태표도 추가된다. 재무상태변동표는 이 구성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재무상태변동표는 현행 K-IFRS가 정한 완전한 재무제표의 구성 항목이 아니므로 문제의 요구에 맞는다.
② X —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보고하는 재무제표이다. 틀린 판단을 고치면 '포괄손익계산서는 재무제표에 해당한다'가 된다.
③ X —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 동안 자본의 변동 내용을 보여 주는 재무제표이다. 틀린 판단을 고치면 '자본변동표는 재무제표에 해당한다'가 된다.
④ X —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의 영업·투자·재무활동별 현금흐름을 보고하는 재무제표이다. 틀린 판단을 고치면 '현금흐름표는 재무제표에 해당한다'가 된다.
⑤ X — 주석은 중요한 회계정책과 그 밖의 설명 정보를 제공하며 완전한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에 포함된다. 틀린 판단을 고치면 '주석도 재무제표에 해당한다'가 된다.

오답 포인트

'재무상태변동표'와 '자본변동표'의 비슷한 표현을 혼동하기 쉽다. 현행 구성 항목은 자본변동표이며, 재무상태변동표는 아니다. 또한 주석은 본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하기 쉽지만 완전한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주석의 다섯 항목을 먼저 대조한다. 이 목록에 없는 재무상태변동표가 제시되면 제외 항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재무상태·포괄손익·자본변동·현금흐름·주석은 포함되고, 재무상태변동표는 제외된다.

NoteBase

문 124. 일반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 접근을 차단한 후, 접근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악성코드는?

① 스니핑(sniffing)
② 랜섬웨어(ransomware)
③ 스팸웨어(spamware)
④ 피싱(phishing)
⑤ 파밍(pharming)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컴퓨터나 파일에 대한 접근을 막고 이를 풀어 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코드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랜섬웨어는 시스템을 잠그거나 파일을 암호화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한 뒤, 복구나 접근 허용을 조건으로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코드이다.
스니핑은 통신 데이터를 가로채는 행위, 피싱은 사칭 메시지나 가짜 사이트로 정보를 빼내는 수법, 파밍은 접속 경로를 조작해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수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스니핑'은 틀린 용어이다. 스니핑은 네트워크상에서 오가는 패킷이나 통신 내용을 몰래 가로채는 행위이며, 접근을 차단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악성코드는 랜섬웨어이다.
② O —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파일의 사용을 제한한 뒤 이를 복구해 주는 조건으로 금전 등 대가를 요구하므로 지문의 설명과 일치한다.
③ X — '스팸웨어'는 틀린 용어이다. 스팸웨어는 원치 않는 광고성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소프트웨어를 가리키며, 접근을 차단하고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는 랜섬웨어이다.
④ X — '피싱'은 틀린 용어이다. 피싱은 신뢰할 만한 기관이나 사람을 사칭한 메시지·가짜 사이트로 이용자를 속여 계정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며, 지문의 악성코드는 랜섬웨어이다.
⑤ X — '파밍'은 틀린 용어이다. 파밍은 도메인 이름 해석이나 접속 경로를 조작하여 이용자를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수법이며, 지문의 악성코드는 랜섬웨어이다.

오답 포인트

스니핑·피싱·파밍도 정보보안 위협이어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접근 차단 또는 파일 암호화'와 '복구 대가 요구'가 함께 제시되면 랜섬웨어를 가리킨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위협의 핵심 행위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통신 가로채기는 스니핑, 사칭을 통한 정보 탈취는 피싱, 가짜 사이트로의 경로 조작은 파밍, 시스템 잠금·파일 암호화 후 대가 요구는 랜섬웨어이다.

암기 포인트

랜섬웨어는 '잠금·암호화 → 몸값 요구'이다.

문 125.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술발전의 법칙은?

◯ 1965년 미국 반도체회사의 연구개발 책임자가 주장하였다.
◯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은 18개월마다 2배씩 향상된다.

① 길더의 법칙
② 메칼프의 법칙
③ 무어의 법칙
④ 롱테일 법칙
⑤ 파레토 법칙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술발전 법칙의 명칭과 대표 내용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1965년 반도체 산업에서 제시된 '마이크로프로세서 성능이 약 18개월마다 2배 향상된다'는 설명은 무어의 법칙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무어의 법칙: 반도체 집적도나 컴퓨팅 성능이 일정한 주기마다 약 2배로 증가한다는 경험 법칙이다.
길더의 법칙: 통신망의 대역폭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메칼프의 법칙: 네트워크의 가치는 연결된 이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이다.
롱테일 법칙: 디지털 유통 환경에서는 소수의 인기 상품뿐 아니라 다수의 비인기 상품이 만드는 누적 수요도 큰 시장을 형성한다는 법칙이다.
파레토 법칙: 전체 결과의 약 80%가 핵심 원인의 약 20%에서 발생한다는 80 대 20 법칙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길더의 법칙'이라는 연결이 틀리다. 길더의 법칙은 통신망 대역폭의 급속한 증가와 관련되고, 제시문의 반도체·마이크로프로세서 성능 향상은 무어의 법칙이다.
② X — '메칼프의 법칙'이라는 연결이 틀리다. 메칼프의 법칙은 네트워크 가치가 이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내용이고, 제시문의 올바른 명칭은 무어의 법칙이다.
③ O — 무어의 법칙은 1965년 고든 무어가 제시한 반도체 기술발전의 경험 법칙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 성능이 약 18개월마다 2배 향상된다는 설명과 일치한다.
④ X — '롱테일 법칙'이라는 연결이 틀리다. 롱테일 법칙은 다수의 비인기 상품이 만드는 누적 수요에 관한 법칙이고, 제시문의 올바른 명칭은 무어의 법칙이다.
⑤ X — '파레토 법칙'이라는 연결이 틀리다. 파레토 법칙은 결과의 약 80%가 원인의 약 20%에서 발생한다는 내용이고, 제시문의 올바른 명칭은 무어의 법칙이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길더의 법칙과 메칼프의 법칙도 정보기술 분야의 법칙이므로 혼동하기 쉽다. ‘반도체·마이크로프로세서’와 ‘18개월마다 2배’라는 두 표현을 함께 확인하면 무어의 법칙으로 구별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술발전 법칙은 핵심 대상과 증가 관계를 연결해 판단한다. 반도체 성능·집적도의 주기적 2배 증가는 무어, 통신 대역폭의 급증은 길더, 이용자 수의 제곱에 따른 네트워크 가치 증가는 메칼프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무어 = 반도체 성능 18개월마다 2배, 메칼프 = 이용자 수의 제곱, 길더 = 통신 대역폭이다.

NoteBase